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류청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학자와 함께 하는 인생 이모작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융·복합 일자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융복합의 개념이 추진된

배경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가  
끝날 무렵에 미국의 백악관 행정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은 2030년대 미국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미래학자들을 모아서 연구를 추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2030년 이후에 일자리에 대한 분석을 끝낸 결과

크게 봤을 때 융합, 복합과 관련된 학문 분야, 다시  
말해서 과학과 공학과 기술과 수학, 이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일자리가 전체의 70%가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에서

졸업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들의 전체 비율을 봤을 때는  
그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STEM 쪽의 학생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정치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상황으로

교육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2030년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젊은 STEM 관련 학생들을

우리가 불러들여야 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일자리를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교육의 프레임을 바꾸자는  
관점에서 융복합의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30년 앞을 내다보고 교육의 계획을 수정하는 미국의  
선진화된 교육 마인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미래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5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융복합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STEM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디자인이라는

예술 분야의 Arts, A를 추가해서 STEAM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적

차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도 A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A는 다름 아닌

Language Arts였습니다. 의사소통기술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워낙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따라서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두 번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치학이나 영성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의식성형학입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의식성형학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놀이학입니다.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모험 심리학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고 긴 수명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미래에는. 그래서 정말로  
복숨을 건 모험을 하다가 정말로 가장 절정에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적  
욕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놀이학이나 모험 심리학

또한 미래에는 유망한 학문 분야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 중심의 융합 학문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현재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분야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과학이라는 분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우주 또는 우주항공학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미래 융합적인 유망 학문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노공학 또는 인공생물학,  
입체인쇄학, 증강현실학, 의식기술학, 만물지능학 이러한

학문들도 앞으로 아주 유망한 학문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거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까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박영숙 씨와 여러 미래학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저술한 '유엔미래보고서 2025'라는 책 안에

실려 있는 내용임을 우선 밝힙니다. 박영숙 씨는  
이 책에서 미래 유망할 만한 직종 54개를 소개합니다.

물론 카테고리를 6개로 설정을 했죠. 그런데 그 54개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 생소하거나 낯설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브레인 퀀트입니다.

여기서 퀀트라는 것은 quantitative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quantitative 하면

'양적인'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바로 통계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체계화된 숫자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유튜버와 같은 형태가 대표적인 **Narrow Caster**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종들이 앞으로 아주 다양한

분야에 많이 출현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캐릭터 **MD**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영화나

애니메이션, 또는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서 히트친 캐릭터나 이미지를 연상 이미지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상 효과를 내게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하는 그러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총칭하는 말을 캐릭터 **MD**라고 합니다. 이런 시장도 대단히 넓은 거로 미래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화 컨설턴트입니다. **Simplicity Consultant**라고 하는 직업인데요. 주변에 보면

그 사람만 지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어지러워졌던 사무실이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 하는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20세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만일에 그와 같이 정리를 참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직업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은 단순화 컨설턴트로 시작해도

충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융복합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통의 문제와 제너레이션 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